

백운산 치유의숲 '전남 유니크 베뉴' 2회 연속 선정

광양시, 지역 특색 살린 산림치유 명소로 MICE 공간 우수성 인정

광양시는 백운산 치유의 숲이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전남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니크 베뉴'는 '독특한 장소'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컨벤션센터나 호텔이 아닌 지역 고유의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공간 중 단체포상관광, 회의, 전시 등 MICE(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 개최가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전라남도는 2023년 처음으로 유니크 베뉴 20개소를 선정(현재 17개소 운영 중)했으며, 백운산 치유의 숲은 2년 만에 다시 진행된 공모에서 독특한 장소적 경험과 지역 대표성을 인정받아 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도 명산 중 으뜸으로 꼽히는 광양 백

운산 자락에 자리한 백운산 치유의 숲은 도심에서 차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삼나무·참나무가 어우러진 울창한 숲속에서 명상, 호흡, 숲 체조, 족욕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회복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백운산 치유의 숲은 향후 2년간 ▲인증 현판 수여 ▲홍보·마케팅 지원 ▲관계자 역량 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마이스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심현우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백운산 치유의 숲이 2회 연속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



을 대표하는 MICE 공간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다채로운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새단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 차선 및 자전거 안내선 도색... 이용 편의·안전성 강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일 시 대표 문화광장인 오천그린광장의 주차장 차선 및 자전거 안내선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차선 도색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 오천그린광장 이용객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방문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공휴일의 주차 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안내선도 중앙선과 마크를 선명하게 도색하여 자전거 동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장 진입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방지하고, 동천변 안내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용객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천그린광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 대표 문화광장"이라며, "차량·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성군이 남도인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정원을 소개한다. 군은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5.10.~11.)'가 열리는 황룡강 일원에서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장성군 황룡강 남도정원의 정취 '가득'

18일까지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

을 황룡강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김명윤 작가의 '밀암십원'은 여귀, 붓꽃, 미나리아재비 등 남도 자생식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박정아 작가의 '시절인연'은 정원과 산책길, 벤치, 돌담 등을 배치해 자연과 사람의 인연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박종환 작가의 '물, 바람 그리고 정원'은 노란색을 지닌 식물들과 부드러운 동선을 활용해 파스하면서도 희망찬 에너지를 전

한다. 서자유·박병훈 작가의 '강의 이야기'는 안개정원, 장대젤리, 바위정원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1894년 동학군이 관군을 상대로 첫 승전을 기록한 황룡촌 전투의 역사를 담았다.

이밖에 수공예품, 도자기 등 남도의 감성을 담은 상품들이 가득한 '가든 플라마켓'에선 미니정원 만들기, 꽃갈피 만들기 등 정원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장성/황혜연 기자



화순군, 텀블러 사용으로 녹색생활 실천하세요

관내 12곳 「착한가게」 지정,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일상 속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인증기업(주)다와 '반들이' 시스템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탄소중립 실천 참여 가게를 공모하여 커피퀵, 정향우케이, 리블리, 마실, 별다방, 벌크커피, 예술로지, 아임 파인커피앤유, 다음, 부덕커피, 원앤시스, 에그브레드제주소 등 총 12곳을 「착한가게」로 지정하였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누리집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 스티커(반들이 앱)를 텀블러에 부착하여 「착한가게」에서 사용하면 1회당 300원,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 또는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ESG 포인트도 추가로 적립 받게 된다.

한편,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운동 참여를 위해 반들이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 환경과(기후변화대응팀) 또는 「착한가게」 지정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개인 텀블러 사용은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착한가게」와 함께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4/30~5/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 영암군 공직자 정책개발 워크숍'을 열었다. 영등포구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영암군 공직자 25명이 참여했다.

영암군 공직자들, 영등포구서 정책개발 워크숍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방문... 5개 분야 아이디어 발굴

개 분야로 나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11개 읍·면 현안을 토론했다.

워크숍에서는 '문래동 꽃밭정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등 영등포구의 선진

정책 학습 시간도 진행됐다. 문래동 꽃밭정원은 자재 창고로 사용되던 공공부지를 구민 쉼터로 재창조하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주민센터, 종합

사회복지관을 합쳐 전 세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바뀐 사례다.

김영중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정책개발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군정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발굴로 영암군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담양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11억 원 증액 편성

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116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54억 원 ▲창

업형 영농시설 및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농업 분야 46억 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33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등 환경 분야 12억 원 ▲관광제림 생육환경 개선 등 문화·관광 분야 10억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 보건 분야 7억 원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 5억 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 32억 원이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부터 대폭 줄어들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